

해외농업 투자환경 조사

A Study on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정 도 응*

Jung, Do-woong

우리 나라 양곡의 자급도는 사료용을 포함하여 1970년도 80.5%, 1990년도 43.1%이던 것이, 1998년에는 31.7%로 낮아졌다. 품목별 자급도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쌀(104.5%)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은 각각 0.1%, 1.2%, 9.5% (1998년)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농지잠식, 영농환경의 악화, 쌀 시장의 개방압력 증가 등으로 쌀산업 기반조차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상이변, 관개수의 양적·질적 부족 등으로 1970년대 초에는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악화되어,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만성적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추정에 따르면, 1일 표준 필요열량의 75%만을 계산하여도, 1999/2000 곡물연도에도 62.3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95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중국 만주, 호주, 동남 아시아 등에 농장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도 1996년에 식량안보와 통일 후 식량 확보를 위하여, 곡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해외개발 수입방안

을 검토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현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해외농업투자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지원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하여, 민간 및 정부의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기술지원, 상담실 운영, 관련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1997년 이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사업목적

조사사업은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해외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세계식량시장의 수급불안과 통일에 대비한 해외 식량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민간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과 투자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지원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 해외농업투자사업의 위험을 경감하고, 국가적으로는 해외 식량공급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간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사업내용

현재, 해외농업개발은 정부주도의 개발보다

* 농업기반공사 사업개발처

는 수익성을 우선한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투자 희망지역에 관한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이 해외농업투자를 위하여 투자환경조사를 요청할 경우, 농업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사업의 경우는, 광역의 조사 대상지 중에 개발 가능지 또는 개발적지를 파악, 민간기업에 제시하는 사업이다. 정책조사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시행하고, 민간기업이 요청한 사업은 조사비의 5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이 부담한다. 조사분야는 자연환경, 농업경제, 생산기술, 농산물 유통, 관개배수, 농지조성, 관련법 및 제도 등으로 농업기반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방향은 투자희망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하며, 제도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여 투자 우선 순위와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민간기업이 투자희망지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회, 경제, 농업기술 등 투자환경 전반을 조사하여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에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단이 농지기반조성, 관개용수개발, 농장설계, 농업생산, 저장, 가공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기술지원을 한다. 이 밖에,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에 해외농업투자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농업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종합관리하고, 해외농업투자상담실을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사업시행 절차

매년 초 지원단은 시·도와 각종 경제인 단체, 농업인 단체들에게 안내서를 보내고 있으며, 희망기업 및 단체에 한하여 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 사업 신청서는 매년 초에 농업기반공사의 지원단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지원단이 배부하는 양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기업경영현황, 투자사업계획서이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에 본사의 소재지를 둔 민간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실 수요업체를 포함하며, 자체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고, 투자대상국 정부와 토지구입 또는 임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구체적으로 토지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개발 후에는 콩, 옥수수, 밀 등 곡물생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업체 중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은 1차로 농업기반공사의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지원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2차로 농림부의 해외농업투자지원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업체를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대상자의 평가기준은 기업의 건설도, 기업경력, 기술인력의 보유, 사업계획, 타 분야 진출효과 등이다. 선정된 업체는 농업기반공사와 조사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4. 사업실적

지원단은 1997년부터 3년간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5개 지구에 대한 농업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5개지구 중 4개 지구(러시아, 중국)는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조사였으며, 나머지 1개 지구(인도네시아)는 (주)한국남방개발(KODECO)이 요청한 민간요청조사였다. <표-1>은 지난 3년간 시행한 조사사업의 요약이다.

〈표 - 1〉 해외 농업투자 조사

국가명	지역	조사구분	기간 및 인원		전문가 수
			기간	인·일	
러시아	Primorskiy Krai Amurskaya Oblast	정책조사	1997.3.22~4.16(26)	100	5
러시아	Primorskiy Krai	정책조사	1997.6.17~7.19(33)	354	12
인도네시아	남부 Kalimantan	민간요청조사	1997.9.3~10.23(51)	273	8
중 국	동북 3개성	정책조사	1998.11.23~12.19(27)	158	7
중 국	길림성	정책조사	1999.8.16~9.12(28)	189	9

1997년에는 통일농정에 대비하여 북한지역과 근거리에서 위치한 러시아의 연해주(Far East Province, Primorskiy)와 아무르주(Amur Province, Amurskaya Oblast)를 사전조사 하였고, 조사결과에 의하여, 연해주 지역 3개 농장, 노보체비찬스키, 씨바콥스키, 노보셀스키(Novodevichanskoe, Sivakovskoe, Novoselskoe)를 중심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남부 칼리만탄은 (주)한국남방개발이 농장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남부 칼리만탄도, 바리토 쿠알라군, 마라바한면(Marabahan Subdistrict, Barito Kuala District, South Kalimantan Province)의 바리토 농장(Barito Farm) 96,800ha 중 일부인 16,181ha에 대한 농장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273일/인을 투입하였다. 1998년도 중국의 동북 3성(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조사도 통일농정에 대비한 것으로 158일/인의 전문가를 투입, 3개성의 농업투자환경과 개발적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1998년 동북 3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1999년도에는 길림성 백성시 대안현시 곽하도 동건지구(吉林省 白城市 大安縣市 古河道 東建地區) 7,770ha에 대하여 189일/인을 투입,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

년도에는 중국 흑룡강성 밀산(密山)·호림(虎林)지구와 몽골을 조사할 예정이다.

5. 조사결과의 활용

지원단은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차기 조사에 반영한다.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단에서 조사 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도 말에 조사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조사결과와 관련 정보들은 지원단에서 지역(국가)별, 업체별로 분석·정리하여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에 배부하고,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의 “해외농업투자조사사업” (<http://www.karico.co.kr/OAI/default.htm>)에 등록하여 필요시 누구라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농업투자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97년 러시아 연해주 3개 농장의 조사결과를 LG, (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 (주)고합사에 제공하였는데, LG는 사업을 보류중이고, (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주)새마을운동연해주개발지사를 설립하여 벼와 콩을 재배 중이며, (주)고합사는 (주)프림코를 설립하여 콩, 메밀, 채

소를 재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은 (주)한국남방개발이 제1단계로 16천ha에 옥수수, 콩, 벼를 재배 중이며,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98년 조사한 중국 동북 3성에는 삼강평원 개발에 착수하였던 대륙종합개발이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개발을 보류한 상태이나, 낙천산업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길림성에 진출하여 벼, 옥수수 농사와 정미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한국농업시설협회는 흑룡강성 개서시와 협력하여 100만평 규모의 한중 수출농단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6. 기대효과

조사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해외 진출업체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에 지원하거나, 조사사업 자체를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대행하여줌으로써 해외농업투자 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농업기반공사는 1967년 이래 33년 동안 국제입찰에 의한 해외용역시장진출, 정부의 해외지원사업 대행 등 해외농업개발업무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왔고, 농업관련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 상담실은, 지난 3년간 100여건의 해외농업투자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다수의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하였거나 투자계획 중에 있는 기업들로, 기업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확보하는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 동안 발간된 보고서는 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의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에 게재하여 관심있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농업

개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보고서 이외에 해외농업투자 관련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가 관련분야의 사랑방이 되어 관련업체간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7. 사업전망

1990년대 중반, 민간기업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해외농업투자 열기는 IMF사태 이후 급격히 냉각되었다. 호주의 축산업에 진출했던 기업도 현지기업을 매각하였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진출하였던 몇 개 기업은 사업을 유보하거나 철수한 상태이며, 중국 흑룡강성에 투자한 업체도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서, 1997년부터 3년간 시행한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은 민간요청사업은 1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구는 정책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가 재개되는 분위기이고, 국내외 농업생산 및 곡물시장의 상황과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해외식량공급기지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에, (주)Goodmorning Farm은 몽골에 1만헥타의 농지를 40년간 임대하여 콩농사를 시작하였으며, 한국농업시설협회는 중국 흑룡강성에 100만평 규모의 수출농단 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는 (사)대한주택건설사협회, (사)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농촌지도자중앙협의회, (주)남양알로에, (주)대경, 한농복구회 등이 추가로 진출하였다.

식량안보면에서 보면, 남한의 인구 4,643만명(1998)과 북한의 인구 2,255.4만명(1999.8)이 합쳐지는 통일한국은 연간 약 780만톤(남한 :

100kg/인/년, 북한 : 140kg/인/년)의 쌀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9년도의 쌀 생산량은 남한이 523.4만톤(727만톤 × 0.72), 북한이 152.3만톤(234.3만톤 × 0.65)으로, 대략 계산으로도 약 104.3만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단립종 쌀의 총량은 250~300만톤 내외이며, 그나마 극히 제한된 국가들에 의하여 수출입되고 있어서, 가격의 진폭을 예상하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곡물 이외에 여러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는 농산물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1999년도에 곡물을 제외하고 미화 1억 달러 이상 수입한 농산물은 사탕수수당, 대두박, 껌, 커피 등이고,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물품은 잎담배, 팜유, 오렌지, 바나나, 대두유 등이다. 곡물을 포함한 상위 15개 농산물의 수입

총량은 미화 3,013.2백만 달러였다. 통일한국의 식량안보와 산업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농장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의 경우, 지난번 UR 협정에서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어서,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으로 1995년도 1%인 51천톤, 2004년 4.0%인 205천톤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곧 2005년도 이후 MMA 물량이나 관세화 여부를 놓고 재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WTO 회원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차기 협상에서 MMA 물량이 늘어나거나, 관세화가 되어 쌀의 시장 개방 폭이 커질 경우, 우리는 국내 쌀 산업 기반의 유지방안의 강구는 물론 해외식량개발 기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